

빌보드 '핫100' 접수한 'K팝→글로벌 팝'...BTS·블랙핑크

시작은 어려웠지만, 이제부터 일사천리다.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한국가수 최초로 1위를 차지한 뒤 철옹성처럼 느껴지던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차트 '핫100'이 K팝의 새로운 안방이 되고 있다.

8일(현지시간) 빌보드에 따르면, 방탄소년단의 새 디지털 싱글 '다이너마이트(Dynamite)'가 12일자 '핫100'에서 정상을 차지했다. 지난 5일자 '핫100'에 이어 2주 연속 1위에 오르는 기염을 토했다.

방탄소년단은 지난 주 한국 가수 최초로 '핫100' 정상에 오르며 K팝의 역사를 새로 썼다. '다이너마이트'는 역대 1위로 '핫100'에 데뷔한 43곡 중 2주째 1위를 지킨 20번째 곡이 됐다.

빌보드는 닐슨뮤직 데이터를 이용해 "다이너마이트"는 지난 3일간의 주간 집계 기준으로 미국 내 스트리밍 횟수 1750만 회, 다운로드 수 18만 2000건으로 '핫 100' 차트 정상을 유지했다.

6일까지의 주간 집계 기준으로 1600만 라디오 방송 포인트를 획득했다.

또 '다이너마이트'는 첫 주 26만 5000건의 다운로드 수에 이어 둘째 주에 18만 2000건의 다운로드 수를 기록했다.

빌보드에 따르면 이는 저스틴 팀버레이크의 '켄트 스톱 더 필링'(2016년 5-6월) 이후 최초로 발매 후 첫 2주 연속 18만 건 이상 다운로드 수를 올린 기록이다.

또 2주 연속 18만 건 이상 다운로드 수를 기록하기로는 2016년 9월 체인스모커스의 '클로저(Closer)' 이후 4년 만에 처음이다.

K팝 걸그룹의 간판으로 떠오르는 그룹 '블랙핑크'도 같은 12일자 '핫100'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다.

미국 팝스타 겸 배우 셀레나 고메즈가 피쳐링한 신곡 '아이스크림'으로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차트 '핫 100'에서 13위로 데뷔했다. 해당 차트 자체 최고 순위이자 K팝 걸그룹 최고 순위다.

'아이스크림'은 발매 첫 주 미국에서 스트리밍 1830만회, 다운로드 2만3000건을 기록했다. 이로 인해 '디지털 송 세일즈 차트' 2위에 올랐다.

◇K팝이 이제 글로벌 팝

팬덤을 기반으로 하는 빌보드의 메인 앨범차트 '빌보드200' 정상은 이미 K팝이 여러

BTS, '핫100' 2주 연속 1위 '20번째 가수'

블랙핑크, 13위로 K팝 걸그룹 최고 순위

차례 선점했다. 방탄소년단이 4번, SM엔터테인먼트의 연합그룹 '슈퍼엠' 1번 1위에 올랐다. '빌보드 200' 5위 안에는 그룹 '몬스타엑스'와 그룹 '엔시티(NCT) 127'도 들었다.

하지만 방탄소년단이 정상에 오르기 전까지 '핫100'은 다소 밟게만 느껴졌다. 2012년 사이가 글로벌 히트곡 '강남스타일'로 7주 연속 2위를 차지했지만, 1위는 꿈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이번에 방탄소년단과 소속사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의 전략이 주효했다. '다이너마이트'는 방탄소년단의 첫 영어 싱글이자 미국에 익숙한 디스코 풍의 장르다. K팝의 현지화다.

무엇보다 '다이너마이트'는 방탄소년단과 빅히트가 자체 작사, 작사한 곡이 아니다.

조나스 브라더스(Jonas Brothers)의 '왓 어 맨 갓타 두(What A Man Gotta Do)?', 헤일리 스타인펠드(Hailee Steinfeld)의 '아이 러브 유스(I Love You's)'를 만든 뮤지션 데이비드 스텐워드(David Stewart), 제시카 아곰바르(Jessica Agombar)가 작사·작곡에 참여했다

일부에서는 K팝의 정체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기도 하지만 제작시스템, 프로모션 과정 등 철저하게 K팝 시스템으로 탄생한 곡이다.

블랙핑크의 '아이스크림' 역시 글로벌화된 K팝의 좋은 사례다. 고메즈가 함께 불렀을 뿐만 아니라 뮤직비디오에도 출연했다. 미국 팝 슈퍼스타인 아리아나 그란데가 작사에 참여했다.

블랙핑크 데뷔 때부터 지금까지 모든 곡을 책임져 온 YG엔터테인먼트의 더블레이블의 수장 테디(TEDDY)를 비롯해 24, 그리고 아리아나 그란데 등 여러 팝스타의 히트곡을 배출한 토미 브라운과 Mr. 프랭크(Franks)가 뭉쳤다.

또 '다이너마이트'와 '아이스크림'은 기존 K팝 공개 시간과 다르게 미국 동부 시간 금요일 0시에 맞춘 금요일 오후 1시에 발표한 프로모션으로도 눈길을 끌었다.

이런 점들로 인해 다소 보수적으로 통하는 미국 라디오 방송에서 돌파구를 모색, '핫100' 차트에 높은 점수가 반영됐다. 그간 한국어 노래 등이라는 이유로 K팝은 라디오 방송횟수 등에서 높은 점수를 얻지 못했다.

이런 점들 덕분에 '다이너마이트'는 오랜 기간 '핫100'에 머물러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2월 발매해 '빌보드200' 1위를 차지한 정규 4집 '맵 오브 더 솔 : 7의 타이틀곡 '온(On)'은 '핫100' 4위로 진입했으나, 2주째에는 68위로 순위가 급격히 하락했고 이후 순위권에서 벗어났다.

하지만 이런 시행착오를 겪은 뒤 발매한 '다이너마이트'는 영어싱글, 다양한 리믹스 버전 등 차트에서 연착륙할 수 있는 '버티는 힘'을 장차, 한동안 순위권에 머물 것으로 보인다.

기존에 '핫100'에 많은 곡을 진입시켜 미국 일반 대중에게 인지도를 쌓은 점도 이번엔 시너지를 내고 있다.

K팝 대표 그룹인 방탄소년단은 이번에 2주 연속 1위를 차지한 '다이너마이트'를 비롯해 이제까지 '핫100'에 총 12곡을 올렸다. '온'(4위), '작은 것들을 위한 시'(8위), '페이키 러브'(10위) 등 톱10에 든 곡만 네 곡이다.

반면 이번 '다이너마이트'는 발매 2주 차(8월28일~9월3일)에 미국에서 스트리밍과 디지털 판매량(다운로드)이 지난주보다 각각 49%과 31%가 감소했지만, 라디오에서는 지난주보다 38% 상승한 1600만명의 라디오 청취자에게 노출됐다.

이로 인해 라디오 방송 횟수로 산정하는 빌보드 팝송 차트에서 지난주 20위에서 이번 18위로 2계단 상승, 해당 차트 자체 최고 기록을 세웠다. '어덜트 팝송 방송 차트'에서는 첫 진입, 29위로 데뷔했다.

블랙핑크도 특히 라디오 방송 횟수로 산정하는 '팝 송스' 차트에서 32위를 기록, 보수적으로 통하는 미국 라디오에서도 두각을 나타냈다. '아이스크림'은 라디오 청취자 510만명에게 노출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와 함께 '다이너마이트'의 차트 고공행진 비결 중 하나는 다양한 리믹스 버전들이다.

빌보드는 지난달 28일 발매된 풀사이드(Poolside)와 트로피컬(Tropical) 리믹스 버전을 언급하며 "두 곡은 8월 21일 발매된 오리지널 버전을 비롯해 EDM, 어쿠스틱(Acoustic) 리믹스 버전과 더불어 '다이너마이트'의 2주 차 스트리밍에 힘을 실었다"고 전했다.

이런 점들 덕분에 '다이너마이트'는 오랜 기간 '핫100'에 머물러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2월 발매해 '빌보드200' 1위를 차지한 정규 4집 '맵 오브 더 솔 : 7의 타이틀곡 '온(On)'은 '핫100' 4위로 진입했으나, 2주째에는 68위로 순위가 급격히 하락했고 이후 순위권에서 벗어났다.

하지만 이런 시행착오를 겪은 뒤 발매한 '다이너마이트'는 영어싱글, 다양한 리믹스 버전 등 차트에서 연착륙할 수 있는 '버티는 힘'을 장차, 한동안 순위권에 머물 것으로 보인다.

기존에 '핫100'에 많은 곡을 진입시켜 미국 일반 대중에게 인지도를 쌓은 점도 이번엔 시너지를 내고 있다.

K팝 대표 그룹인 방탄소년단은 이번에 2주 연속 1위를 차지한 '다이너마이트'를 비롯해 이제까지 '핫100'에 총 12곡을 올렸다. '온'(4위), '작은 것들을 위한 시'(8위), '페이키 러브'(10위) 등 톱10에 든 곡만 네 곡이다.

SONG	ARTIST
1 Dynamite	BTS
2 WAP	Cardi B ft. Megan Thee Stallion
3 Laugh Now Cry Later	Drake ft. Lil Durk
4 Rockstar	DaBaby ft. Roddy Ricch
5 Blinding Lights	The Weeknd
6 Watermelon Sugar	Harry Styles
7 Whats Poppin	Jack Harlow ft. DaBaby, Tory Lanez & Lil Wayne
8 Mood	24kGoldn ft. iann dior
9 Savage Love (Laxed - Siren Beat)	Jawsh 685 x Jason Derulo
10 Before You Go	Lewis Capaldi

chart dated Sept. 12, 2020

이밖에도 '아이돌' 11위, '마이키 드롭' 리믹스 28위, '블랙스완' 57위, 'DNA' 67위, '메이크 잇 라이트' 76위, '마이 타임' 84위, '필터' 87위, '웨스트 잇 온 미' 89위 등이 '핫100'에 진입했다.

멤버들이 따로 발표한 솔로곡까지 포함하면 '핫100' 진입곡은 더욱 늘어난다. 슈가의 '대취타'가 76위, 제이홉의 '치킨 누들 수프'는 81위에 올랐다.

이 곡들까지 포함시키면 방탄소년단이 '핫100'에 진입시킨 곡은 총 14곡이다.

블랙핑크는 '핫100'에서 계단식 성장의 모범을 보여주고 있다.

2018년 '뚜두뚜두'로 55위, 작년 '킬 디스 러브'로 41위, 올해 6월 '하루 유 라이크 댓' 33위 등 점점 상승세를 타고 있다.

블랙핑크가 해외 팝스타들과 협업곡까지 포함하면 '핫100' 진입곡 수는 더 늘어난다.

2018년 영국 싱어송라이터 두아 리파와 함께 한 '키스 앤 메이크 업' 93위, 올해 초 레이디 가가의 노래에 피쳐링한 사위 캔디가 33위를 기록했다.

'핫 100' 40위권에 3곡을 연속으로 진입시킨 여성그룹은 미국 걸그룹 '피프스 하모니' 이후 블랙핑크가 처음이다. '피프스 하모니'는 지난 2015~2016년 '핫100'에 4곡을 연속으로 올렸다.

빌보드는 1990년대 중후반 절정의 인기를 끈 영국 출신 걸그룹 '스파이스 걸스(Spice Girls)'의 톱40 진입 7연속 기록을 언급, 블랙핑크에 대한 기대감을 간접적으로 내비치기도 했다.

이러한 기세에 힘입어 데뷔 4년 만인 오는 10월2일 발표되는 블랙핑크의 첫 정규앨범 '더 앨범(THE ALBUM)'에 대한 기대감이 높고 있다. 지난달 28일 예약 판매가 시작된 이 앨범은 6일 만에 전주분량 80만 장을 넘어서었다.

SM엔터, K팝스타 육성 교육기관 설립...내년 3월 개강

지속적으로 글로벌 스타 배출할 수 있는 교육기관 목표



SM엔터테인먼트그룹이 K팝 글로벌 스타 육성 교육기관을 설립했다.

SM엔터테인먼트(공동대표이사 이성수·탁영준)와 종로학원하늘교육(대표이사 임성호)은 K팝과 대중문화 인재육성을 위한 글로벌 예술교육기관인 '에스엠 인스티튜트(SM Institute·SMI)'를 설립했다고 9일 밝혔다.

SMI는 서울 중구 남산에 위치한 동량예술원(옛 서울예술대학) 부지에 들어설 예정이다.

서울문화재단 남산예술센터의 연극 공간으로, 현재 서울시가 임대 운영 중인 곳인데 올해 말 계약이 끝났다.

SMI는 "세계에서 사랑받고 있는 K팝과 K컬처 등 한국 대중문화의 세계적 흥행에 기반이 된 인재 육성 노하우를 교육 프로그램해 제공함과 더불어 글로벌 스타가 될 국내외 학생들을 위해 특화된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언어 교육을 함께 제공해 지속적으로 글로벌 스타를 배출할 수 있는 교육기관을 목표로 한다"고 전했다.

또한 SMI에는 모델과 연기자 에이전트인 에스팀(대표이사 김소연)도 함께 설립과 운영 전반에 참여해 모델을 비롯한 다방면의 스타를 배출할 예정이다.

SM과 종로학원은 지난 2016년 양사간 MOU 체결 이후 3년여에 걸쳐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왔다.

SMI는 "오프라인 교육 커리큘럼과 더불어 인공지능 등 에듀테크를 활용한 어덜티브 러닝 기술과 콘텐츠를 접목해 언택트 시대에서도 글로벌 예술 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SMI는 2021년 3월 개강을 준비하고 있다.

앞서 10월부터 국내외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강생을 모집한다.

트레저, 콘셉트 티저 영상 공개...“데뷔곡보다 강렬”

두 번째 싱글 음원, 오는 18일 공개

그룹 '트레저(TREASURE)'가 두 번째 싱글 앨범 티저 영상을 공개했다.

8일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트레저는 이날 공식 블로그에 '더 퍼스트 스텝 : 챕터 투(THE FIRST STEP : CHAPTER TWO)' 콘셉트 영상을 게재했다.

영상 속 트레저 멤버들은 몽환적인 음악을 배경으로 카리스마 넘치는 모습을 선보였다.

아울러 '퍼펙트 매치(PERFECT MATCH)', '폴링 포 유(FALLING FOR YOU)', '라이트 오브 마이 라이프(LIGHT OF MY LIFE)' 등의 문장이 기대감을 불러일으켰다.

'더 퍼스트 스텝 : 챕터 투' 음원은 오는 18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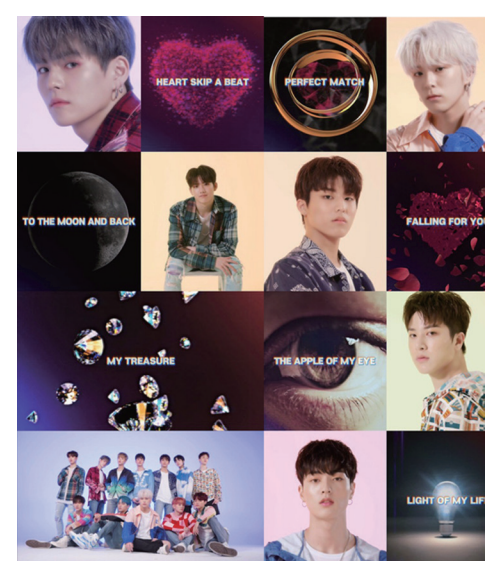
공개될 예정이다.

두 번째 싱글 앨범의 트랙리스트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YG 측은 "트레저의 신곡은 데뷔곡보다 더욱 강렬하다"고 밝혔다.

지난달 7일 데뷔한 트레저는 YG가 그룹 블랙핑크 이후 약 4년 만에 선보인 신인이자 처음부터 글로벌 시장을 겨냥한 대형 그룹이다.

멤버는 최현석, 지훈, 요시, 준규, 마시호, 윤재혁, 아사히, 방예담, 도영, 하루토, 박정우, 소정환 등 총 12인이다.

이들이 지난달 발매한 첫 싱글 앨범 '더 퍼스트 스텝 : 챕터 원(THE FIRST STEP : CHAPTER ONE)'은 초동(발매 후 일주일간 판매량) 16만장을 넘어서며 올해 데뷔한 케이팝(K-POP) 신인 그룹 최고 기록을 세운 바 있다.



‘서울국제뮤직페어’, 올해 온라인 개최

오는 23일부터 26일까지



글로벌 뮤직 마켓 '2020 서울국제뮤직페어'(MU:CON ONLINE 2020·뮤콘 온라인 2020)가 오는 23일부터 26일까지 온라인으로 펼쳐진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가 주최하고 한국콘텐츠진흥원(원장 김영준·콘진원)이 주관하는 뮤콘은 올해로 9회를 맞이한다.

국내의 음악산업계의 네트워크 구축과 업계 종사자 간의 교류 활성화를 통해 해외 진출을 도모하는 자리다.

올해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전면 온라인으로 전환해 열리며 콘퍼런스, 쇼케이스, 피칭, 네트워킹 등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뮤콘 온라인 2020' 콘퍼런스는 '코로나19 이후의 음악산업(Post Corona, Next Music Industry)'이 주제다. 24일 '글로벌 음악시장의 변화와 흐름', 25일 '음악산업의 경계를 허무는 뉴(New) 비즈니스'를 주제로.

레이블 '88라이징(Rising)'의 공동창립자이자 현재 미국에서 틱톡의 대항마로 급부상하고 있는 소셜 음악비디오 플랫폼 트릴러(Triller)의 제이슨 마(Jaeson Ma) 공동대표의 '팬데믹 이후의 음악시장 변화와 흐름'이 기조 연설이다.

'비욤다 라이브'로 비대면 콘서트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가는 SM엔터테인먼트 이수수 대표의 '컬처 테크놀로지, IP 산업 그리고 언택트'도 기조연설이다.

또한, 실리콘밸리에 위치한 음악산업 데이터 분석 기업 차트메트릭(Chartmetric)의 조성문 대표의 '음악산업의 데이터 분석과 A&R의 미래와 K팝 팬덤의 주요 소셜미디어 트위터의 김연정 이사 '뉴 비즈니스를 위한 K팝 팬덤 워킹' 등을 통해 음악산업 내 새로운 비즈니스 인사이트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국내외의 뮤지션 간 협업 프로그램인 '뮤콘 콜라보'에 선정된 밴드 '새소년'의 황소윤(SoYoON)과 해리버버튼이 콘퍼런스에 참여, 코로나 시대에 해외 뮤지션과의 협업 과정을 담은 '뮤콘 콜라보 제작기'를 공개할 예정이다.

인디밴드, 힙합 등 K팝의 다양한 장르의 뮤지션 70팀이 온라인 쇼케이스를 선보인다. '뮤콘 온라인 2020'의 시작을 알리는 23일 오후 7시 개막 축하공연에는 ▲린탐 ▲여자친구 ▲온앤오프 ▲드림캐처 ▲문빈&산하(아스트로) ▲쥬지 ▲이남지 ▲박문지 ▲가오 등 다양한 장르의 뮤지션들이 참여한다.

24일부터 26일까지 이어지는 '뮤콘 쇼케이스'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윤상이 뮤콘 예술감독을 맡아 프로그램 기획에 참여했다. ▲MC 스나이퍼 ▲림킴(Lim Kim) ▲서도밴드 ▲틱펄스 ▲순송연을 비롯한 국내외 뮤지션 총 70팀이 참여한다.